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전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교회설립 15주년 · 추수감사절기념 메시지

##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후대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물론 15년간을 돌이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겨우 이것이나'는 자조(自嘲)속에 일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가 있으나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그릇은 작은 종지에 불과하나 주님은 등이로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한 질그릇 일 뿐인데 주님은 그 안에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선하지 못한데 선한 사람이나 받을 아니, 선한 사람도 받지 못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으니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 이까.

내 노력에 비해 그 열매가 크고 놀랍습니다. 밭을 갈 때 한 고랑을 갈고 돌아보니 세 고랑씩 갈려져 있듯이 나의 수고에 비해 추수가 풍성하며 업적에 비해 보상이 과분할 뿐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속함을 받은 은총을 비롯하여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내 기도에 비해 주님의 응답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인데 응답 받은 것이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풍성하니 그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서울교회를 섬기면서 수 없이 체험해온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여,  
교회설립 15주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교회설립15주년 기념주일 · 추수감사절

##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

우리는 15년 전 초겨울 논현동에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민족과 세계를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동안 우리는 이곳 대치동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지난해 헌당 하는 큰 은혜를 받는 한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KIMCHI 세미나, 선교사 파송, 농어촌 100교회 후원 등 수없이 많은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여 왔

다.

오늘 우리교회는 교회설립 15주년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추수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한다.

# 9대 집사 · 8대 권사 임직 1대 협동권사 취임 · 선교사 파송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오늘을 교회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며 찬양예배 시간에 지나 5월 피택된 이후 그동안 교육 기간을 가져온 9대 집사 58명과 8대 권사 61명이 임직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1대 협동권사 10명의 취임식과 이스라엘과 터키로 파송되는 3명 선교사의 파송식이 함께 거행된다.

오늘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죽도록 충성하여 열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받도록 기도한다. 또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영육간 강건하여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임직 받는 집사와 권사, 선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9대 집사-연령순>

신종권 박태선 송성식 이영조 홍승전 강승웅 김재성 김현관 원용범 배재송 서명조 김진환 김형배 김익환 김영호 한주찬 이승래 박희서 김재중 장 덕 김광욱 최임수 이종창 임낙식 차도훈 이병현 김영빈 윤명구 원용구 권혁우 주동재 안성현 진교남 이학명 윤동수 여완식 차영도 고성진 은기장 이강진 강낙훈 진승근 한광마 한상준 윤태욱 박광식 신항범 김진달 송인수

박조현 김원중 김원웅 손영호 최낙준 김광태 박형수 김한성 윤종덕 (이상 58명)

#### <8대 권사-연령순>

서영세 이수경 최양자 정복순 박순자 권은주 마은숙 함인호 이채봉 김지은 김은숙 차명숙 소선자 서경애 고완순 노순례 광선자 김선이 손현순 김영숙 조영자 박천희 한옥순 주화인 김효순 노경신 백영자 김영희 주의현 남영주 송혜숙 김진희 왕경애 나금주 윤숙희 조정옥 김사라 신정순 이자혁 오혜숙 박성금 서영희 김영정 김영란 서희숙 김미자 서경숙 정경자 김일순 채경희 박미혜 이관모 이영희 김선영 송동선 윤주현 위성남 나기태 허숙 강은숙 김정임 (이상 61명)

#### <1대 협동권사-연령순>

서수경 전희심 장연순 탄금희 정태신 이정희 윤정식 선경자 임춘자 이종균 (이상 10명)

#### <파송 선교사>

· 이스라엘-이황명, 손혜신 선교사  
· 터키-전광해 선교사

# 2007년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후원자 모집

## 농어촌교회 목회자 최저 생활비 보조

2007년에도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은 본 교단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따라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조하는 일을 협력하고 있다. 교회 내의 개인, 가정, 기관, 단체는 약정된 구좌(1구좌:월10만원, 1/2구좌:월5만원)를 후원함으로써 미자립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히 후원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하여 후원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17일까지이며 전도위원회에서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 2007년도 서리집사 교구일꾼 임명

## 12월3일(주일) 주일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12월중에 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임명식을 갖는다. 다음 주일은 첫 순서로 주일예배 시간에 2007년 서리집사와 교구일꾼(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도로 준비하여 서리집사로 교구일꾼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충성하기를 기도한다. 3부예배 후에는 교구 총회로 모인다.

# 필그림 선교여행 CBS방송

지난 10월30일(월)부터 11월11일(토)까지 진행된 필그림 선교여행을 CBS에서 녹화하여 12월1일(금) 오후10시에 방송하고, 12월 2일(토) 오후1시에 재방송을 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바란다.

성지순례팀의 사진은 서울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인식년을 마치며

# 다시 부름 받은 이 몸

#### 임훈규 장로(10교구)

교회의 규정에 따라 민순규, 윤찬오, 이완형 장로님과 더불어 1년간의 인식년을 가지고 시무 장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식년 기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겸손하였는가, 낮은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 하였는가,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 하였는가 등등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거듭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서울교회에 다시 부름 받은 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하나의 모퉁잇돌로 감추인 희생자가 되어 묵묵히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고자 합니다. 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낙서하는 자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직임자의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하여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충직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임직자 · 선교사 · 당회원 기념촬영

### 오늘 오후 3시 50분 2층 본당

오늘(주일) 오후 3시 50분 임직자 전원과 파송 받을 선교사들이 당회원들과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한다.

촬영은 2층 본당에서 하며 시간을 엄수하시고 정장차림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야 한다.

집사와 권사로 임직 받는 이들에게

#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신용식 장로 (13교구)

서울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며 안수집사 58명, 권사 61명, 협동 권사 10명을 새롭게 세우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서울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

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안수를 받는 안수집사 및 권사님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참으로 우리 서울교회를 이끌고 갈 믿음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 확신이 듭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우리 서울교회가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며 빈약한 자 구제하는 교회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복음 증거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헌신으로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항상 순종

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 봉사하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말과 자세로 성도들을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안수 받는 집사님·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집사와 권사로 임직 받으며

#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손영호 피택 집사 (1교구)

2001년 처음 서울교회 등록했을 때 새로 건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지난 10년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건축을 위해 흘렸을 눈물과 땀과 기도를 생각하고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주일저녁 찬양예배 때 새가족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쏟았을 희생과 헌신에 무임승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약속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기간은 제겐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으며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사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

았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겸손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직분을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라는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으며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항상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과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과 교회의 위계에 적극 순종하며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어른들의 가르침과 지시하심에 늘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게 맡겨질 일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느 일보다 우선하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맡겨지더라도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힘껏 드리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타인

에게 분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과 같이 성령, 지혜, 말씀이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부지런하여 타인에게 분이 되며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내 부서와 내 주변만을 제한적으로 보지 않고 폭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게 되든지 교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서간 협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 앞에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제게 일할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희숙 피택 권사 (12교구)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커다란 짐으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문득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불신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 이웃의 손길을 통해 오늘까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며, 지극히 작은 능력을 귀히 보시고 오늘까지 쓰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그 풍성한 사랑으로 제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것은 지극히 적으나 늘 기뻐 받아주셨고,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능력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제까지도 내 힘으로가 아니었기에, 감당키 어려운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서도 그저 도우심과 힘 주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섬기라는 명령으로

알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누린 그 크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삶에 계속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여종이었노라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선교사로 파송받으며

#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황명 · 손혜신 선교사(이스라엘 파송)

저희 가정을 이스라엘 선교사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서울교회에서 3개월을 지내는 동안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리더십에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한 섬김을 통해 선교지에 가기에 앞서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

다. 15년 동안 이종윤 목사님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서울교회가 이제 저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에 큰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원칙 중심적이고 모범이 되는 리더

십을 가까이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서울교회는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고, 저희 선교사들은 가지가 되어 즐기에서 나오는 기도와 사랑의 양분을 통하여 선교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복음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외국인들에 대하여 비자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는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초기 2-3년의 적응기간 동안 언어를 잘 배우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

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갖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전광예 선교사(터키 파송)

2006년 6월, 뜻하지 않게 서울교회와의 만남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11년을 묵묵히 터키에서 지내면서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을 내는 자그



마한 여종을 기쁘게 보셨나봅니다. 그 곳에 할 일이 많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서울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의논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0여년의 세월 속에서 많이 altered 한국교회의 열정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지난 3개월여의 기간은 제게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종윤 목사님의 열정적인 사역을 통하여 소중한 목회철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힘 있게 함께 이루어가는 위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충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로님들,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과 어디서나 기쁘게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삶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의 세 가지 비전(vision)과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세 가지 교회 목표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 이념과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성 있는 행정의 목회 전략과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라는 교회의 방향을 세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신행일치의 본을 보이는

서울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서울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06년 11월 26일 오후 5시 서울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다시 떠납니다. 이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성령 안에서 사랑의 줄로 매어져 기도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터키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서울교회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가득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울교회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사업의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지순례 기행문-2

# 주님의 흔적을 찾아서...



이예정 집사(신성교회)

유난히 날가람이 심한 저와 남편은 티고와라 성지순례에 동참하는 것이 조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영 만도사님의 권리와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이 가신다고 하여 성류밭길을 택했습니다.

가는 날부터 오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성령에, 예수님에 꼭 젖어계신 목사님 곁에서 그 역기스를 받아 먹으며 가는 곳곳에서 받은 벅찬 감동과 감격은 무

어라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었습니다. 첫날 도착한 이스탄불을 내가 상상했던 스산한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우스드말라' 노래가 고독하게 배어 있는 음산한 정구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에 깜깜한 새대산을 하늘의 무수히 뻗어 있는 별빛조명을 받으며 나리톨 타고 올라갈 때 그 기분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등티오는 시내산 정상 기슭에서의 예배는 제평생 뜻있을 순간입니다. 벅차오르는 감동은 한없이 나를 작아지게 하였습니다.

주님! 늘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삶이 빚졌던 그 자

리에 들어서자 정령이 내 몸을 환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기여라 말할까요...

주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픈셨나요? 어떤 성지순례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으신 이종윤목사님의 얼굴은 왜 그리도 하얗고 광채가 나던지. 가는 곳마다 어찌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던지. 시마다 때마다 드린 예배의 찬양으로 저의 남편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진 듯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과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서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

김옥임(1교구)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 배워야 할 것과 또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성지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로마제국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절대적인 통치자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으며 후로 비잔틴 기독교 문화는 11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화려한 영화를 누리며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서기 1453년 오스만투르크에 정복되면서 성당은 이슬람 사원으로 전락했고, 오늘날 터키는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여 IMF를 힘겹게 버티는 중이었으며 거리는 은통 거지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후에라도 들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월에 모은 후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에 이르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실로 확인케 되

다운 도성,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고 노래하는 예루살렘 성에 임성하였습니다.

역사나 종교에서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어 많은 성지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언덕에서 시작하여 감람산, 승천교회, 주기도문 교회를 거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왔습니다. 마침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을 올라 예수님이 들렸던 돌무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곳,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에는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 그리스 정교회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고린도, 온갖 수호신들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곳은 높은 학문과 문화예술의 산지에서 전도활동을 벌인 바울의 복음에 대한 반대함과 열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시계는 몇 시쯤인가 되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깃발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는지...

잠시 내적인 갈등을 접고 이오니아 해를 비롯해서 지중해, 에게해로 둘러싸인 그리스는 천혜의 자연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많은 순례자들의 마음과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늘거리며 춤추는 갈대, 노래하듯 미소 짓는 바람, 바다의 향긋하고 가벼운 향기, 들고 보고 숨 쉬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 옛날의 순례자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하고 돌아갔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무릎 꿇고 기도하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글

# 장애 자녀는 주님의 선물

이영애 집사(2교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낳은 둘째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14살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라는 병명을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이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애우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복지는 너무 냉담하여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장애 자식에 대한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그 현실

은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더해갔고 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점차 잃어갔습니다. 사람이 두려웠고 새로운 만남을 기피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너무 힘겨워 아무 것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는 이정도 신앙이면 충분하다고 자조할 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은 시간이 흐르고야 알았습니다. 아이로 인해 그동안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내가 변화되었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비밀한 계획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저는 무엇보다 아이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참사랑을 베풀어주신 서울교회 사랑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사랑부 친구들의 영혼이 그 누구보다 맑은 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서울교회 사랑부가 새로운 친구들로 넘쳐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참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아! 방글라데시...

조남예 선교사

방글라데시에서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평안의 안부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서 교회도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방글라데시는 금식기간은 끝났지만 정부가 중립정부로 넘어가 많은 데모와 오버로드(수도인 다카와 지방의 도로를 묶고 차는 아무 것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로 많은 시민이 죽고, 다니는 차는 때려부수는 위험하고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로가 다 묶여서 수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을 보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방글라데시의 정치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내년 1월말에 있을 선거를 준비하는 중립정부가 부정한 방법을 버리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선거를 준비하여 이 땅에 꼭 필요한 수상이 뽑히도록.

2.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땅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3. 아샤(소망)호스텔에 아이들이 6명 들어왔습니다. 5-8살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진정한 예수

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4. 내년부터 호스텔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곳의 종교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마땅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5. 호스텔 직원 아이들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호스텔 일을 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6. 한국에서 전도사 한 분이 이곳에 옵니다. 전도사님이 이 땅과 소망 호스텔을 마음에 품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7. 마지막으로 저와 제 자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는 더 깊이 기도하는 자로 서고 지혜로 모아 보건 센터와 호스텔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 땅에 일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늘 영육이 강건하도록...

자녀들이 겨울방학동안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데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곳에 다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8일(화) 한국 근선교 신학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오길택 집사 박정설 권사 가정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9 한보라마을 904-406 T. 031-693-8138  
한중호, 김미혜 집사(10교구)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73 에버빌 APT 2차 212동 701호 T. 033-257-3352

■ 특남: 최현주 성도(13-22)

■ 주간식당 봉사: 빌립선교회(11월26일), 안드레선교회(12월3일)

■ 금주의 식사: 정응문 집사 이미연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 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감사·감사·감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2. 선교사 파송·피택과 임직식 은혜롭게 진행되고 받은 사명 잘 감당토록
3. 15주년을 맞은 서울교회,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도록
4. 사회 안정과 지도력이 세워지도록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